

고신 신학과 개혁주의 전통

김 영 재
(합동신학교 교수, 역사신학)

한국의 장로교가 여러 교단으로 분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고신 교단은 여러 분립된 교단의 하나이고 고신 신학교는 교단 신학교로서 한국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의 하나이다.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고신은 고신 교단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 고신의 개교는 한국교회에 큰 파문을 야기하여 고신 교단의 분립을 초래하였으니, 그것을 필두로 하여 한국 장로교는 분열의 역사로 진입하게 되었다. 고신은 한국 장로교 신학교의 하나로서 보편성을 지니는 동시에 특수성을 지닌다. 고신 신학의 특수성은 고신이 배태되게 된 역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신학적인 내용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고신은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과업을 다해왔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도전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신학 연구 활동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회가 얼마나 개혁주의 전통과 신학에 충실한가 하는 문제는 늘 검토해야 할 일이며, 교회와 신학이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숙고해야 할 일이다. 한국 교회는 백 여년을 자라 오는 가운데, 여러 신앙 운동과 신앙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쉽게 하지만,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신학 사상이나 운동들, 이를테면, 세대주의, 근본주의, 경건주의, 복음주의, 오순절교파 운동 등에 대처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다. 이러한 신앙 사상들

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일에 나름대로 철저하고 보수적이며 신령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쉽게 영입되어 한국 교회 안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와 근본주의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개혁주의 전통을 바로 이해하는 일, 개혁주의 신학적인 전통을 보수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전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규명하는 일이 개혁신학의 과업이다. 모든 신학활동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고신 신학의 역사와 특성을 살피면서 개혁신학의 공동의 과제 '두어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고신 신학을 성실하게 논하려면 교수들의 논문과 저서를 일일이 들면서 그 내용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겠으나 피상적으로 일반화하여 논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은 이미 필자의 글과 책에서 논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I. 자유주의에 신학에 대한 단호한 거부

한국 장로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캐나다 선교부가 관할하는 함경 지방의 목사들에게 소개되어 상당수의 추종자들이 생겼으나 보수적인 목회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러한 사상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1935년 총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경향을 띤 아빙돈 주석도 자유주의적인 신학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정책으로 말미암아 1939년 총회의 결의로 장로교마저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와 신학에는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평양신학교는 폐쇄되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는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투옥되거나 망명 생활을 하게 되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신학자와 목사들은 1940년에 조선신학교를 세워 그들의 신학 사상을 따라 신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신사참배 강요 정책으로 한국 교회를 유린하고 보수적인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활동과 세력을 봉쇄한 일제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아무런 제약이나 반대 없이 육성하고 보급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와 온상(溫床)을 제공받은 셈이었다.

해방 후 이러한 조선신학교가 1946년 6월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직영신학교로 승인되자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한상동(韓尙東)과 주남선(朱南善)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학교 설립 기성회는 6월부터 3개월간 진해(鎭海)에서 박윤선(朴允善)을 주 강사로 하여 하기 신학강좌를 개설하고, 이어서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위하여 당시에 아직도 만주에 거주하는 박형룡을 교장으로 청빙하기로 하고 우선 박윤선을 교장으로 세워 1946년 9월 20일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였다. 박윤선은 평양신학교가 폐쇄된 후 지속적인 목사 양성을 위하여 만주에 설립한 동북신학교에서 박형룡의 후배요 조력자로서 함께 교수하였다.

고려신학교 설립의 동기와 목적부터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고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는 것이었다. 고신은 일찍이 1950년에 교회의 신앙노선에 대하여 밝히 말하였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적인 체계,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대소요리문답을 지지한다. 우리는 개혁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확고한 체계임을 믿으며, 바빙크, 카이퍼, 워필드, 핫지, 메이첸, 별코프 등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소위 신정통 신학, 즉 바르트와 부룬너와 니버와 기타의 범증법적 신학자들의 신학을 반대한다.”¹⁾

II.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선견적인 반대 표명

박형룡목사는 1947년 9월 20일 귀국하여 10월에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1) Harvie M. 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Philadelphia, Vol. 29, Nol, 1966—Vol. 30, No. 2, 1968. p.173f. 에서 재인용.

취임하였으니 신학교의 진로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1948년 4월 박형룡은 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떠났다. 한국 교회 쇠신의 방법과 한국 교회에 선교해 오던 장로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박형룡은 교회의 쇠신 문제를 두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관용과 오래 참음을 호소하였으나 학교 측은 그것을 쇠신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로 간주하였으며, 한국 교회를 지지해 오던 모든 장로교 선교회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미 선교회가 속해 있는 본국 장로교회들이 에큐메니칼 노선을 견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상에 타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학교측은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사상에 단호하게 반기를 드는 미국 정통장로교 선교회 및 독립장로교 선교회와 계속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학교를 지지하는 경남노회가 총회에서 거부당함으로 말미암아 1952년 노회가 분립하여 고려과 총회로 출발하게 되었다.

장로교의 큰 총회가 신학의 자유를 구가하는 김재준(金在俊)의 목사직을 파면하는 바람에 그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분립하여 1953년 기독교 장로회를 형성하였다. 그 이후 나머지는 큰 총회는 W.C.C. 가입 문제를 두고 1959년 합동파와 통합파로 분열되었다. 쇠신운동에 선뜻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용과 선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원하던 박형룡은 마침내 W.C.C. 대하여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합동 측 총회는 여러 선교회와의 협력관계를 청산하고 정통장로교회와 독립 장로교회의 선교회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고려신학교가 취해 온 입장에 결국은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교신 측은 이 점에 대하여 일찍부터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고려신학교장인 박윤선은 1950년 4월에 발간한 소책자에서 W.C.C. 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우리는 장로회는 세계기독교 연합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에 위반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의 세계기독교연합회의 움직임

이 전통적인 정통주의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통주의가 아닌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장로교회더러 그 옳지 않은 회(세계기독교연합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합류하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그것을 자중하고 있습니다.²⁾

세계기독교 연합회에는 신신학자(新神學者) 위기신학자 사회복음주의자 등의 그 주동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주요한 목적은 세계교회의 사교(社交)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계교회의 진로(進路)를 교도(敎導)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암스텔담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급속히 처음부터 각 교파의 교리를 그들의 그릇된 주장대로 통일하려는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적으로 먼저 교회실권(교회정치력, 다대한 사람 수 내지 국가의 권력)잡기를 노력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실권을 잡은 후에 그것으로 세계교회를 장악하려 합니다. 사태가 결국 그렇게 되는 때에는 세계교회의 각 교파는 성경과 교리에 의거하여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그런 세계교회 운동의 실권에게 포로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³⁾

Ⅲ. 고신 신학의 특색

고신이 자유주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고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부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일찌감치 분명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한국 장로교의 보수 신학을 사실상 주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합 측과 결별한 총신 측이 고신의 노선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고신의 신학적인 입장은 합동과 총신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1963년 재분립 이후 경험하게 된 하나의 변화는 합동 이전까지 봉직했던 교수진은 총신에 잔류하고 새 교수진

2) 朴允善, 「大韓예수教長老會는 어디로 가나?」, 1950, 18쪽.

3) 같은 책자, 20쪽.

으로 시작하게 된 점이다. 전 조직신학교수 이상근(李相根)과 총무요 교수로 봉직한 안용준(安容濬)은 총회신학교에 남았으며, 합동 이전에 이미 고신을 떠난 박윤선은 재분립 이후 총회신학교에서 교수하게 되었다. 고신에는 고신 출신인 홍반식(洪蕃植)과 오병세(吳秉世)는 합동한 총회신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재분립 이후 이근삼(李根三)과 함께 고려신학교에서 교수하기 시작하였다. 정통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은 고신측의 재분립 이후에도 고신측과 합동측 양 교단 신학교에서 일하였다. 하도레(T. Hard)는 고려신학교에서 그리고 간하배(Harvie M. Conn)는 총회신학교에서 전임으로 교수하면서 각자가 두 학교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총신 측과 고신 측의 신학적인 차이는 없으나, 신학의 내용을 추구함에 있어서 고신의 차별화가 다소 드러나게 되었다. 개혁주의 전통은 광범하여 유럽에서도 나라에 따라서 다소 달리 발전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룡은 한국 장로교회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전통을 받아들였으므로 그것을 유일한 불변의 전통으로 보전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개혁주의를 구태어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으나, 고신은 개혁주의 전통을 보다 넓게 수용하게 된 셈이다. 박윤선은 고려신학교 재직 기간 중 1953년 화란으로 단기간 유학하였다. 화란 신학에 대한 그의 열정과 관심은 그 이후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고신에게 개혁주의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기여한 이근삼을 통하여 여러 후진들에게 확산되었다. 고신 측 교회는 화란의 개혁교회와 우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많은 고신 출신 신학자들이 화란과 남아공의 화란계 신학교에 유학한 사실은 많은 한신(韓神) 출신이 독일에서 유학한 사실과 대조가 된다. 고신에는 화란의 개혁주의를 배우고 경험한 신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다른 신학교와 다른 하나의 외형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IV. 고신의 경건과 이념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운동과 한국 교회의 쇄신을 목적으로 하는 고신의 개혁 의지에 찬동하는 많은 전도자들과 목사 지망생들이 모여들고 고신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실제로 지속함으로써 초기의 학교는 회개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고려 교단이 재분립을 감행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신학교의 경건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려신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분립 이후 1970년대에 고려 교단의 지성인들이 고신 분립의 명분을 찾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교회 분립의 명분은 찾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분립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건은 신학의 내용이 아니고 신학하는 자세요 신앙하는 태도이므로 교회 분립의 수궁할만한 요건은 될 수 없다. 경건성, 즉 신앙 생활의 자세 혹은 태도를 재분립의 명분으로 생각한 고신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신학교 설립을 주도한 이들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과 신학교 당시 회개 운동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순교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순교 정신’은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에 고난을 무릅쓰고 반대한 이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이념화한 말이다. 순교는 핍박이 닥치는 역사적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핍박이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겪게 되는 순교를 위하여 마음을 다지는 ‘순교 정신’은 신앙의 자세요 태도이지 신학적 색깔이나 노선을 나타내는 신학 사상의 내용은 아니다. 신앙의 자세를 이념화하여 학교의 정체성(正體性)을 대변하는 것으로 강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신학의 내용인양 착각하게 된다. 신학 내용과는 별개의 ‘순교 정신’은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데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방향으로 분출될 수도 있다.

경건이 교회 분립의 수궁할 만한 명분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분립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다. 장로교가 많은 교단으로 분열을 하여 수많은

은 신학교들이 서게 된 현실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고신은 ‘순교 정신’이라는 수동적인 개념의 경건에서 명분을 찾기보다는 한국 교회와 개혁주의 전통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학의 내용추구를 명분으로 내세워야 할 것으로 안다. 그것은 합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합신은 학교의 이념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보다 능동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개념은 역사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나오게 된 것이지만, ‘바른’이라는 개념은 신학하고 신앙하는 태도요 자세를 지칭하는 말이지 신학의 내용을 함축하는 말은 아니다.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교는 신앙과 별개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로 생각하며, 경건과 학문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러나 경건을 신학의 내용으로 혼동하면, 경건과 학문의 불균형과 신학 내용 연구의 위축을 초래한다. 신학의 내용이 없는 경건은 개혁주의 전통에 속하는 경건이 못된다.

경건, 즉 신앙하고 신학하는 자세는 교과를 떠나서 보수적인 신학교면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이므로 신학교의 차별화는 신학의 내용에서 이루어진다. 경건의 아름다운 전통은 지키고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건으로써 학교를 차별화하는 표지로 삼으면, 그것은 독선(獨善)이 된다. 신앙하는 자세는 또한 상대적인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고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 그러한 차별화는 퇴색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러한 차별화는 그냥 구호로 남게 되며, 공동체는 바리새주의의 만연으로 진통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신학교가 이념으로 내세우고 강조해야 할 것은 신학하고 신앙하는 자세, 즉 경건과 더불어 경건을 뒷받침하는,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신학의 내용이어야 한다.

V. 고신의 신학지와 고신 신학의 위상

총신이 평양신학교가 1918년부터 오던 「신학지남」을 그대로 이어 계간으로 발간해 왔음에 비하여, 고신에서는 신학지(神學誌)가 고신 신학을 표상할만한 이름을 가진 신학지로 계속 발간해 내지 못했음을 아쉽게 여긴

다. 고신의 신앙과 신학을 대변하는 잡지는 처음에 「과수꾼」(1948-1963)으로 나왔다가 계속 이름이 바뀌었다. 두번째가 「개혁주의」(1963-1973), 세번째가 「고신대학보」(1974-1977), 네번째로 「개혁신앙」(1977-1980)으로 바뀌었다. 그후 고신 교단에서는 「월간고신」(1981-현재)을, 고신 신학대학원에서는 「고려신학보」(1980-현재)를 출간하였다.

「고려신학보」에는 신학을 하는 이들을 독자로 하는 신학지이긴 하나 학생이 편집하는 학생들의 연구 발표지로서 학생들의 학구열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고신 신학을 대변하는 신학지는 역시 신학 교육을 담당하며 신학 연구를 지도하는 교수들의 논문집이어야 할 것이다. 교수 논문집은 1969년에 제 1집이 나오고 4년후인 1973년 제 2집이 나왔으며, 1975년 제 4집이 나오면서부터 해마다 한권씩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1986년 나온 제 14집까지는 신학관계 논문이 주로 실렸으나 1987년 제 15집에서는 신학 분야에 관한 6편의 논문과 함께 9편의 교육 및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이 실린 것을 본다. 그리고 1988년 제 16집부터는 신학논문은 “인문과학 분야”라는 구분 아래 종속되고 있으며, 전체 논문 수의 5분 1밖에 되지 않는다. 고신대학교의 학과 증설로 인한 일반 대학부가 비대해진 데 반하여 신학부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 교수 논문집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신학 분야”라는 구분까지 양보한 것을 보면, 신학과에서 출발하여 발전해 온 고신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신학과의 계속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대학의 중심적인 학과로 남아야 할 당위성에 대한 의식을 상실한 것 같이 보인다. 고신이 초기에 신학적으로 선명한 기치를 들었던 그런 전통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신학 논문들이 이와 같이 일반 논문들과 섞여 묻히게 된 것은 대학의 정체성과 신학과의 정체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그래서 교회 가 쉽게 신학 논문들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논문집의 이러한 편집은 신학과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부터 신학대학원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히도 교수 논문을 따

로 편집하여 「개혁신학과 교회」라는 제명으로 출간하여 1995년에 제 5호를 내기에 이르렀다. 「개혁신학과 교회」라는 제호(題號)는 고신 신학의 내용과 방향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표지(標識)로 보인다. 1969년 교수 논문집이 처음 나올 때부터 신학지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을 붙였다더라면, 논문집은 일찍부터 고신 신학의 ‘매스크’로 역할했을 것이며, 그것이 또한 논문집의 성격과 방향을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指標)가 되어 신학 논문의 존재가 일반 과학의 논문에 밀려 희석화되는 길로 가는 것을 예방해주었을 것이다. 「개혁신학과 교회」가 제명 그대로 한국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을 위한, 그리고 고신 신학을 대변하는 논문집이라면, 고신 신학의 발전과 풍성함을 위하여 대학의 신학 교수들도 집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안다.

VI.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수용

1. 개혁주의 전통의 수용에 따르는 문제

선교지 교회에 신학이 전수될 때 무의식한 가운데 여과 과정이 이루어짐을 관찰하게 된다. 신학적 전통의 다양성 때문에도 그러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토착 교회의 문화적, 역사적, 및 재래 종교적인 배경의 차이 때문에도 그러하며, 신학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어서도 그러하다.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부수적인 장로교회가 청교도적 개혁주의의 신앙과 신학을 전수 받았다고 하지만, 신앙과 신학의 내용에 대한 지식보다는 영미 청교도의 금욕적인 신앙의 태도를 배워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로 그 교리를 구원론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교리 측면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회와 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여되어 있어서 균형을 잃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개혁주의 전통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말하나, 복음주의와 부흥주의의 영향으로 특별 은총은 강조하면서도 일반 은총에 대한 개념은 희

박하다. 그것은 또한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고신에서는 이근삼이 일찍부터 개혁주의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에 앞서 한명동을 비롯한 고신의 지도자들은 개혁주의 문화 창달에 대한 꿈을 가졌었다. 1950년에 고려신학교의 예과를 분리하여 칼빈 학원(대학)을 개설한 것은 그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신학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의 대학이 아니고, 개혁주의 문화 창달의 기관으로서의 대학을 회구하였다. 여하튼 개혁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문화 창달 기관인 대학의 정체성과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회의 학교인 신학교의 정체성을 옳게 분간해야 한다.

종말론을 두고 말하자면,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천년설을 택하지 않는 데 반하여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1960년대만 하여도 무천년설을 자유주의적이라고 백안시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마치 종말론의 정설인 것처럼 이해해하였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선호하게 된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해 때문에 세대주의의 영향을 입어서도 그러하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자라왔으므로 종말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역사를 회구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것이라고 하여 다 수용해서는 안되도 배제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개혁주의 전통에 속하는 스코틀랜드의 계약자들(the Covenanters)의 계약신학을 그들의 열렬한 신앙적인 자세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 사상을 정치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을 세속의 나라 백성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계약을 어긴 군주에게 대항하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그러한 군주를 응징하였다. 사죄의 은총을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개념보다는 실천과 이행을 요구하는 구약적인 언약의 개념을 더 부연하고 강조한 계약자들은 극히

배타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향은 미국으로 이민한 초기의 청교도에게서도 볼 수 있다.

2. 개혁주의 신학의 수용과 주체성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 안에는 개혁 신학에서 창의적(創意的)인 신학 연구는 있을 수 없으며, 개혁 신학자들이 이미 말한 것을 소개하거나 꽃다발을 만들 듯이 조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 연구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이해가 못될 뿐더러 개혁주의 전통을 보수하는 것도 아니다. 서양의 신학을 수용함에 있어서 무의식한 가운데 여과가 이루어지므로 취사선택된 결과를 옳게 관찰하고 평가해야 하며, 또한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주체성있는 신학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성경은 완전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언제나 새롭게 발견될 수 있고 발견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성경 이해를 개혁주의 전통에 조명함으로써 도움을 얻고 점검을 받는 것이지만, 개혁주의 전통은 또한 성경에 조명하여 수용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17세기 루터교나 개혁주의 교회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에는 차이점이 있고 강조점이 다르며, 유럽의 개혁 교회와 영국의 개혁 교회, 즉 장로교회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산, 소위 3대 칼빈주의자로 손꼽히는 카이퍼(Abraham Kuyper)와 바빙크(Herman Bavinck)의 신학이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학을 신뢰하고 수용하면서, 한국의 개혁신학이 서양의 개혁 신학자들이 말한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상은 달리 신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신학이 성경 이해라는 점에서 그것은 설교와 같다. 설교가 성경의 말씀에 청중에게 알아듣도록 강해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신학도 구체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를 의식하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가 처해

있는 사회를 향하여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메시지 전달(communication)이
 어야 할 것이다. 가령 스펄전지의 설교가 훌륭하다고 하여 그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면서, 그 설교가 19세기의 영국에서 얻은 그런
 효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17세기의 정통주의 개혁
 신학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될 수 없으며, 그 모든 신학의 체계가 반드시 한국에 사는 오늘의
 교회에게 신앙과 삶을 위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신앙고백과 신학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납의 경우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1967년 바르트 신학에 근거한 새 신앙고백을 내놓
 자, 이에 보조를 맞추어 기장교단은 1972년에 토착화 신학과 세속화 신학
 에 근거하는 새로운 신앙고백을 내놓았다. 합동교단은 1965년에, 고려교단
 은 197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수한다는 뜻에서 각자 교단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였다. 한국 장로교회의 독노회가 탄생할 당시 12신조
 를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참고할 것으
 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보수 교단은 한국신학 수립을 위한 기독교 신학의
 토착화에 대한 논의와는 역행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통합교단은 1987년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 W.C.C.계열
 의 보수적인 합동 측과 고신 측 교단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이므로 한국의 장로교
 회가 신앙고백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적
 으로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
 되게 설명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기독교 진리를 보수하고자 신앙고백을 작
 성하고 더 체계 있게 서술해 왔으며, 성경의 진리는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
 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고 특정한 교리가 더 강조되곤 하였다. 종교개혁 이
 후 유럽의 나라들은 대체로 나라별로 신앙고백을 작성하고 채택하였다. 이
 런 점을 고려한다면, 보수적인 장로교회라고 하여 새삼스럽게 웨스트민스

터 신앙고백을 교회의 신앙고백서로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훌륭한 장로교 신앙고백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것은 17세기에 영국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교회론적으로는 장로교의 국교화를 염원하는 가운데,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을 반대한 알미니안주의를 의식하는 가운데 작성한 것이므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조항이 다 20세기말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는 한국 교회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신앙고백이 교회의 현실적인 신앙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냥 덮어두게 되므로, 교회는 신학 부재의 교회가 된다. 그리고 교회의 실천과 신학과와의 괴리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될 것이다.

4. 개혁주의 전통과 창의적 신학 연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 대한 연구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텍스트로 간주하듯이 그냥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상황 및 신학적인 배경과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와 교회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글에서 국가가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사실을 충실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칼빈의 국가론이 다원적인 종교를 가진, 비기독교적인 나라에서도 그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전통의 보수는 전수된 것을 가감 없이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신학 연구를 통하여 개혁주의 전통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다. 개혁 신학의 창의성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전개한다는 뜻에서의 창의성을 말한다. 이러한 창의성이 곧 개혁신학의 생명이다. 한편의 설교가 교인들과 호흡하고 공감하면서 사는 생활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거쳐 작성되듯이, 신학 역시 그러하다. 교회와 사회의 현실 속에 살면서 기독교 진리를 신선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곳에 개혁주의 신학은 꽃을 피우고 나뭇대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의식해야 하는 한편, 교회의 전통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부분, 즉 삼위일체론, 성령론, 예정론 등에 대한 부분을 두고도 보다 더 충실히 성경에 근거하여 서양의 개혁신학자들의 설명을 뛰어 넘어 수정하고 그들이 못다한 것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해무의 삼위일체론(“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개혁신학과 교회』 제3호, 1993)은, 그런 노력과 참신함이 돋보인다.(『개혁신학과 교회』 제3호에 실린 교수회의 성령론 연구 보고서는 한국의 교회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글로서 서양 신학자들의 글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성경에만 근거하여 열린 개혁신학적인 시각에서 시도한 유익한 글로 생각한다.

VII. 개혁주의 교회관과 역사 의식

개혁주의 신학의 수용에서 왜곡된 부분 가운데 가장 지적할 만한 것이, 교회관 문제이다. 고신 교단을 비롯한 여러 분립한 장로교회들이 분립의 당위성 혹은 불가피성을 말한다. 그것이 주관적인 진술이든 객관적인 평가이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비록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당위성이 항상 유효한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상황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이기를 표방한다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실의 교회를 직시하고 조명하는 신학적 작업이 있어야 한다. 신학은 교회를 위해 있으나 교회는 또한 신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한국 장로교회가 현재 100여개의 교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분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의식 때문에, 즉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교회의 분립이 형식상으로 타의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은 1952년 고신 교단의 분립이 유일하다. 총회가 회개를 촉구하는 고신 측 경남노회의 총대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고신측이

주류인 총회측으로부터 거부당함으로써 부득이 분립하게 되었다. 1953년의 기장 교단의 경우가 고신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밖에는 분립한 그룹이 자의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자의로 분립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이다.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는 심각하다. 교회는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순결을 상실하고 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윤리 부재의 교회가 된다. 분열로 인하여 난립하는 교회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불기 피하게 치러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자체의 성장과 생존을 위하여 상업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100여 개를 헤아리는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들이 1907년 장로교 독노회의 역사를 이어 받은 것으로 자처하며 총회의 회기도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나 많은 교단들 가운데는 분립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생적인 교단들도 있다. 불건전한 신학을 가진 종교 집단도 버젓이 장로 교단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수많은 교단들 틈새에서 안전하게 서식한다.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 많은 무인가 신학교들이 서게 되었으며 신학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회와 총회의 권위, 즉 교회의 교권(敎權)이 실추되었으며, 교단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장로 교회의 교구 교회적인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와해되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는 개교회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교단들이 교회 개혁을 명분으로 분립을 감행했으나,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 교회 분열은 결국 개혁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식한다. 건전한 개혁주의 전통을 추구하는 신앙인이나 공동체라면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분열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지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리주의적인 교회관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를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동일시하고, 따라서 신성불가침의 유일한 교회로 자처하는 가톨릭 교회는 분열이 거의 없다. 교회의 통합을 이념으로 하여 세계 기독교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 있는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분열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개혁주의와 개혁을 더 많이 강조하는 합동을 비롯한 보수 측 장로교회가 주로 분열한 사실을 보면, 교회관이 역시 교회 분열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보수적인 교단들이 개혁주의를 표방하기는 하나 세대주의나 경건주의 혹은 부흥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개혁주의적이기보다는 신령주의적인(Spiritualistic). 다시 말하여, 분리주의적인 교회관을 갖게 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관도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한국 장로교의 12신조에는 교회에 관한 고백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회에 대한 조항에서 교회를 “보이는 교회”(可視的 教會)와 “보이지 않는 교회”(不可視的 教會)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17세기의 사변적인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교회론 가운데, 특히 교회에 관한 사변적인 교리를 부연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음과 동시에 그것을 단순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가톨릭 교회, 즉 기구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쇠신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개념을 이분화 하였다. 루터는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로 나누어 말하고,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여 말하였다. 완전한 구원으로 택함을 성도의 모임을 ‘내적인 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고, 최종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으나 교회에 적응하거나 출석하는 교인들은 다 표용하는 현실의 교회를 ‘외적인 교회’ 또는 ‘보이는 교회’라고 하였다.

선택의 교리를 따라 추론하자면 당연히 이분화하여 말할 수 있다. “청함을 받은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라는 말씀도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런 이름으로 뚜렷하게 이분화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한편, 흠이 많고 불완전한 현실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 상(教會像)을 가르친다. 신약이 가르치는 바람직한 교회는 현실의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서 선택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현재의 “여러분”, 즉 허물과 죄가 많으며,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일에 불완전한 “여러분”, 즉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성화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다. 바울은 교회를 이분화하지 않고 하나로 말하지만, 그렇다고 로마 가톨릭이 현실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유기적 몸과 동일시함으로써 오류가 없이 자족한 교회로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바울은 허물이 많은 현실의 교회는 바람직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화됨을 지향해야 하는 교회로 말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교회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교회, 즉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교회이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여 성장해가야 하는 교회이므로, 교회의 자체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불완전한 교회에 충실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분화 해서 말하면 서도 우리가 정작 논할 수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였다. 즉, 바울이 말하는 교회관을 옳게 파악한 것이다. 그 말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지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교회에 충실해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칼빈 자신은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의 대부분의 시민이 속한 소위 국가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신앙인들만의 별개의 교회를 주장하는 재세례파를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목회 이념을 충분히 펴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는 일을 개의치 않았다. 칼빈은 개신교의 하나 됨을 위하여 부단히 힘쓰는 한편, 교리적인 타협은 거부하면서도 가톨릭 교회와의 재 연합에 대한 희망을 평생토록 간직하였던 것이다.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 상이 추락되고 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분화(二分化)하는 교회론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하여 그냥 교과서를 외우듯이 복창할 것이 아니고, 성경

이 말하는 교회상의 여러 측면을 밝히 조명하면서, 우리의 교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론을 말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긴장 관계에서 교회를 이해하였다. 그런데 누구든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을 그들의 의도와 역사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균형 있게 이해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이해하면, 즉 그 어느 하나를 소홀히하고 포기하든지, 다른 하나에 치중하거나 역점을 두면, 로마 가톨릭과 같이 교권주의에 기울어지거나 신령주의자들과 같이 분리주의에 빠지게 된다.

종교개혁 이후 객관적인 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변주의 신학으로 흐른 정통주의(正統主義)에 반발하여 17세기 말에 독일에서는 회개한 중생과 구원을 강조하는 경건주의(敬虔主義)운동이 일어났다. 경건주의는 신령주의 전통에 속하는 운동으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추구하였다.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교회사가(教會史家) 고트프리트 아놀드(Gottfried Arnold, 1666-1714)는 교회 역사에서 두 가지 사건이 대조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제도로서의 교회가 타락하여 세속화되는 반면에 영적인 참된 교회는 ‘시온’으로 참 신자를 모으는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루터나 칼빈이 가졌던 교회관과는 달리 재세례파의 분리주의적인 교회관과 일치한다.

대부분의 경건주의자들이 교직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나 그것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경건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쾨켄도르프가 이끄는 모라비안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완전히 분파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갔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퀘이커들이 교직 제도를 부정하는 교파를 형성했으며, 같은 경향의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은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의 우찌무라(內村)에 의하여 시작된 무교회(無教會)는 퀘이커와 플리머스 형제단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는 일찍이 자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가 되었으며, 김교신과 함석헌 등이 지도자로서 역할하였다. 그런데 우찌무라의 영향은 한국 교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말 책을 읽을 수 있는 연령 층의 많은 한국의 목사들이 우찌무라의 책과 구로자끼(黒崎)의 주석을 읽었으므로, 그들의 글에 스며있는 신령주의적인, 즉, 분리주의적인 교회관의 영향을 무의식한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구로자끼의 주석이나 김교신의 글을 보면 분리주의 교회관이 농후함을 발견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부흥운동을 경험하였으며, 세대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의 등 신령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보이는 교회’에 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역점을 두는 경향을, 즉 분리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장로교 교단들은 연합과 하나됨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론에 관한 논문으로서 직분론을 논하는 글은 발견되나 좀 더 원론적인 혹은 역사 신학적인 시각에서 논한 글은 별로 볼 수 없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연합을 모색하는 시점에 이상규의 “칼빈과 교회연합운동”(교수논문집 제 22집, 1955)에 대한 글은 적시(適時)의 연구인 줄 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가장 노력한 이가 바로 칼빈이었다. 그런 사실을 소개하는 것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금기 사항으로 여겨 왔다.

VIII. 개혁주의 성례관

한국 장로교회가 또 하나 반성해야 할 것은 성례관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標識)를 말씀과 성례라고 하였으며,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거기다 권징을 덧붙여 말하였다. 권징이라는 개념은 교회의 조직과 질서, 교인의 성결한 생활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말씀과 성례가 옳게 선포되고 존중되는 교회에는 권징도 갖추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 아니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야 한다. 그 어느 하나든지 소홀히 하여 균형을 잃게 되면, 다른 요소들도 옳게 유지될 수가 없다. 중세 교회가 미사를 행한 것을 가리켜 중세 교회의 예배는 성례전에 치중한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나,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전이 없는 예배임을 지적하였다.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므로 우

리가 받는 은혜로, 은혜 주시는 수단으로 알고 있는 데 반하여,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의 화체설을 따르고 성찬을 제물로 생각하므로 성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로 묶은 것이 미사이다.

성경 말씀을 높이고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에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예배를 개혁했으나, 성례를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성찬을 두고 루터의 공재설에 쾰빙글리가 상징설로 대처하는 가운데 칼빈은 소위 영적 임재설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성찬을 시행하는 빈도수에서 칼빈의 견해 보다는 쾰빙글리의 견해를 따르는데, 설교에 역점을 두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쾰빙글리의 견해에 더 가까운 성찬관을 말한다.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 교회인 한국 교회는 보다 쾰빙글리적인 성찬관과 실천을 따르게 되었다.

쾰빙글리는 성찬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는 상징으로 가볍게 생각하였으므로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성찬은 1년에 네 번 정도 베푸는 것으로 하였다. 쾰빙글리의 성찬 이해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복음주의의 여러 교회들이 따르고 있다. 성찬을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칼빈은 매주일 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시에서는 이미 칼빈이 그 곳으로 오기 전부터 쾰빙글리의 영향을 받아 시행하던 대로 1년에 네 번 하는 관행을 고수하려고 했으므로 칼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성찬을 대체로 1년에 네 번 행하는 관행이 된 것이다. 우리 한국 장로 교회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해 왔으므로 개혁주의 교회의 일반적인 관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한국에 온 초기의 선교사들이 지역 교회를 1년에 두 번씩 순회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이 생겼다는 설명도 있다. 학습과 세례를 받는 기간을 각각 6개월로 하고 있는 데서도 연유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나 반성 없이 그렇게 지켜 온 것이라고 본다. 그뿐 아니라 “구원은 성례를 통하여 얻기보다는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설교를 중심하는 예배로 만족한데서도 온 것이라고



본다. 성례는 교회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복음주의적인 사고인데, 믿음과 성례를 대구(對句)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다.

한국 장로 교회의 예배도 여태껏 성찬은 소홀히 하는 설교 중심의 예배였으므로 이제는 거기서 파생되는 약점들이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다. 성례를 소홀히 하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회중들로 하여금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설교자를 따라 쉽게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대교회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었다. 공동체의 귀중함을 배우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성숙이 그 만큼 지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즉 교회의 귀중함과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면 권징도 옹기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상실하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교회에서 교인을 징계할 경우, 가장 중한 벌이 출교이고, 그 다음으로 중한 벌이 수찬 정지(修饌停止)인데, 성찬식을 자주 행하지 않는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수찬 정지를 징계로 실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 말씀의 설교와 함께 성례를 중요시하고, 이를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IX. 개혁주의 전통과 복음주의 운동

고신은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하려고 하면서 소위 “성령 운동”에 대하여 단호하게 비판한 것은 개혁주의 전통을 보수하려는 고신으로서의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에 대하여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복음주의 운동은 경건주의 운동에서부터 발원하여 18세기와 19세기의 부흥운동과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신앙 운동이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교리를 균형있게 다루고 교회와 신자의 삶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체계이

며 교회의 전통입에 반하여, 복음주의는 특정한 교리, 즉 개인의 구원과 복음전파와 선교에 강조점을 두는 신앙운동이다. 복음주의는 경건주의적 요소를 가져 중생과 회개, 새 사람됨을 설교하고 성령의 사역과 그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강조한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다. 설교에서도 성경 본문을 주로 개인의 신앙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개혁주의와 상치되거나 대치되는 사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복음주의는 구원론에 특별한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교회론에 속하는 교리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일 만 한 것이 못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구원론적인 교리에 속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교회론적인 교리에 속한다. 그렇다고 하여서 구원론적인 교리와 교회론적인 교리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경우, 보이는 교회는 물론 교회론의 대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론에 귀결된다. 또한 세례의 경우, 물세례는 교회론적으로 당위성(當爲性)을 지니지만, 우리를 거듭 나게 하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성령 세례는 구원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의 교리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균형 있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고 신학은 온전한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인간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주의 시대의 루터교나 개혁주의의 신학이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여 이를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수한다고 할 때, 교회는 신앙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객관적인 진리에 충실하려는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부흥운동과 해방 이후 회개운동을 경험한

고신 교단은 보다 합리성에 근거하여 짜임새 있는 신학을 말하나 회개와 부흥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화란 교회와는 차이가 있다. 개혁주의 교회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강조하는 운동이므로 복음주의의 신학적인 한계점을 충분히 아는 가운데서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이 보다 균형 잡힌, 생동성 있는, 풍성한 개혁주의 신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성령운동에 대하여서는 교리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참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좀 더 사려 깊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X. 맺는 말

보수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신앙사상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개혁 신학의 과제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신학하는 일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것은 끝없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신학 작업은 지식을 동원함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긍정적인 신학 연구는 목회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연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신학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최선을 다할 뿐이다. 신학교가 경건과 학문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 될 사람의 자질과 인격의 훈련을 위하여서만은 아니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신학 연구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건과 개혁 신학의 전통을 추구하는 고신의 발전과 교단 교회의 부흥을 기대해 본다.